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방안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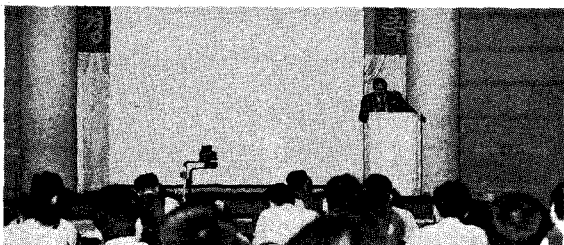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일 경실련 강당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악취와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원인인 음식물 쓰레기 반입 거부를 발표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 김포수도권매립지대책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되었다.

태송환경(주)

한·미·덴 환경기술 심포지엄



지난 10월 11일 태송환경(주)(대표이사·전금하)는 리베라 호텔에서 「폐기물 소각설비의 선진 대기오염방지기술 한·미·덴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매립난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소각정책으로 바뀌면서 소각배출가스의 처리기술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기술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회전 분무탑에 의한 폐기물 소각 배출가스 처리기술」 등이 발표되었다.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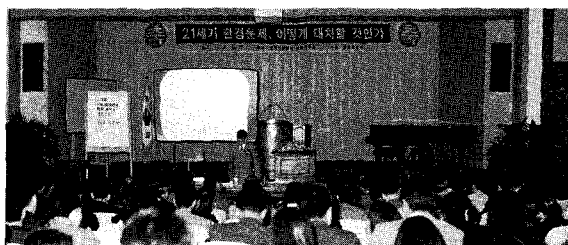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소장·박영숙)는 지난 10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생활하수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수질개선대책과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등 우리나라의 수질개선대책, 생활하수 처리정책 및 국내의 처리기술 현황과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연수원

21C 환경문제에 대한 세미나



한국전력공사 서울연수원(원장·윤행순)은 지난 10월 17일 「21세기 환경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환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환경이 개인생활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동세미나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준환 연구실장의 「향후 국제 환경규제 전망과 대응방안」을 비롯한 「21세기 대기환경 예측과 대책」, 「21세기를 대비한 환경기술 개발전략」 등 6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사)사랑의 녹색운동 본부

가을 수련회

(사)사랑의 녹색운동 본부(회장·최홍규)는 지난 10월 19~20일 동안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문에서 '96 가을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팔당수질검사소 방문과 환경특강 및 용문산 계곡 생태계 관찰 등을 통한 환경보호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동아대학교

개교 53주년 기념행사

동아대학교는 (사)한국폐기물학회, 한국지하수자원보전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4일 부산 웨스턴조선비치 호텔에서 「우리 미래의 물과 폐기물」이라는 주제로 「제10회 환경기술개발 국제 심포지엄」을 주최하였다.

동아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동 심포지엄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물 그리고 폐기물의 관리현황과 장래과제」,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중유럽에서의 폐수처리와 폐기물 관리의 현황과 미래」, 「말레이시아에서의 폐수의 미생물적인 문제」 및 일본 교토대학교, 중국 상하이대학교, 독일 크라우스탈공대·보쿰대학교 등 각 지역의 환경현안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다.

조선일보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정책과제 토론회

조선일보사(사장·방상훈)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유장희)은 공동으로 지난 10월 24일 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에서 「OECD 가입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학계, 정책입안자,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OECD 가입에 따른 정책대안을 토론하는 장으로 마련된 동 행사에서는 「자본이동과 투자의 자유화 확대와 정책과제」, 「무역과 환경분야의 정책과제」 등으로 나누어 주제발표가 있었다.

(가)녹색소비자연대 창립준비위원회

창립대회

(가칭)녹색소비자연대 창립준비위원회(공동대표·김명자, 김문환, 김용복, 이정자, 이정진)는 지난 10월 11일 서울 YMCA 강당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 행사는 창립선언문 낭독과 한국소비자보호원 허신행 원장의 축사 및 「녹색소비자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라는 비디오 상영이 있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정용)는 지난 10월 25, 26일 양일간에 걸쳐 건국대학교에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학술발표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예측기법」, 「제도개선」, 「평가기법」 등 3부문으로 나누어 발표된 동 행사에서는 「대기오염도 실측에 의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대표성 평가」, 「체첵슬래그매립으로 인한 인근 해역의 중금속 오염도 변화 및 재활용 방향에 대한 연구」, 「환경보전형 농업의 육성을 위한 퇴비화 법제 개성에 관한 연구」, 「환경정보 검색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연구」 등 14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한편 학술발표 후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연구견학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토론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원장·이변송)은 지난 10월 28일 코리아나 호텔 스테이트룸에서 환경개선분야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도시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대한 연구와 수도물 직결공급체계의 도입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상호 책임연구원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서울시 도시하천 정비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중앙일보사

'96 환경산업전



한독상공회의소 · 뒤셀도르프박람회 조직위원회

ENVITEC 서울



중앙일보사(사장·홍석현)는 지난 10월 10일~13일 까지 4일간에 걸쳐 한국종합전시장 대륙관에서 '96 환경산업전'을 주최하였다.

국내 최대규모로 올해 4회째를 맞은 동 산업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 스웨덴 등 10개국 148개 업체가 2천여점의 환경제품을 출품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수자원환경신문사는 지난 10월 24일 경희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및 지구환경연구원(IGE) 등과 공동으로 「현대산업과 작업장에서의 환경스트레스」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작업장에서의 환경문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10월 25일에는 「제3회 물과 지구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환경심포지엄」을 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주최하기도 하였다.

조선일보사(사장·방상훈)는 지난 10월 2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한·일 국제환경상 1996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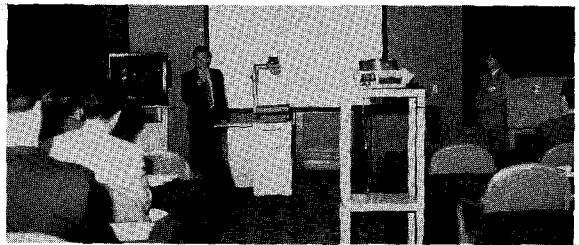
일본의 매일신문사와 공동으로 '96년에 창설한 동 시상식에서는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양운진 상임의장과 일해외경제협력기금 히사다 카즈오 기술고문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97 세계환경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정종택, 강영훈)는 지난 10월 8일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명예위원장에 이수성 국무총리를, 경제5단체장과 6대 종단대표를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ENVITEC 서울 '96」이 지난 10월 10일~13일 까지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 대륙관에서 중앙일보사가 주최한 '96 환경산업전'과 협력하여 함께 개최되었다.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기술을 위한 세계적인 무역박람회인 엔비텍이 아시아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독상공회의소 주관하에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우수 환경설비업체 75개사가 참석하여 국내 기술과 비교·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환경관련 동부 독일 기업들의 소개회 및 상담을 주최하여 국내기업과의 교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시회와 함께 독일 기계공업협회 산하 환경기술 및 마케팅 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한 분야별 기술 심포지엄이 10월 10, 11일 양일간 인터콘티넨탈 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독일의 환경관련 기술전문업체들의 최신환경기술을 발표한 동 심포지엄에서는 수질, 폐기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슬러지를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데 가장 적합한 수분제거 기술」, 「재활용 물질의 이용을 통한 공해방지 및 에너지 생산」, 「화석연료의 연소, 폐기물 소각공정, 일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재와 먼지의 효과적인 처리」,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아황산가스를 감소시키는 고효율의 배출가스 탈황공장(FGD)용 재생열 교환기」 등 선진기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